

## 下第詩 研究

박동욱

한양대학교 인문과학대 부교수 / sanwoon@hanmail.net.

### 차례

1. 서론
2. 하제시의 현황과 창작 경위
3. 하제시의 주제 구현 양상
4. 결론

## 1. 서론

下第詩는 과거 시험에 실패한 뒤의 감회를 적은 시를 말한다. 『全唐詩』에는 약 600여 수, 『全宋詩』에는 약 295수의 하제시가 각각 수록되어 있다. 주로 당나라 시기 하제시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sup>1)</sup>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다양한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 과거제도의 실제 상황을 충실히 알 수 있고, 하제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불공평과 불공정한 이유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울러 하제 이후에 하제자들이 보여준 행동과 선택은 어떠했는지, 또 그들의 다양한 심리 상태까지 엿볼 수 있다.

과거 합격은 登第, 及第, 折桂<sup>2)</sup> 등으로 표현했으며, 이와 관련된 말로는 朱衣點頭<sup>3)</sup>, 雁塔題名<sup>4)</sup>, 呼婢聲<sup>5)</sup> 등이 있다. 반면 과거 탈락은 落榜, 落科, 落第, 下第, 不第 등으로 표현했으며, 이와 관련된 말로는 點額<sup>6)</sup>, 孫山外<sup>7)</sup>, 飲墨<sup>8)</sup>, 清灑<sup>9)</sup> 등이 있다. 급제시보다 하제시의 비중이 훨씬 많으며,

1) 鄭曉霞, 『唐代科舉詩研究』, 華東師範大學 博士論文, 2005; 黃雲鶴, 『唐宋時期落第士人研究』, 東北師範大學 博士論文, 2005; 龍麗, 『晚唐落第詩研究』, 湘潭大學 碩士論文, 2006; 葉偉, 『唐代落第詩研究』, 安徽大學 碩士論文, 2007; 任斌, 『唐代落第詩研究』, 華東師範大學 碩士論文, 2007; 滕雲, 『唐代落第詩研究』, 華東師範大學 博士論文, 2008; 張春娟, 『唐代及第詩研究』, 河北大學 碩士論文, 2012; 陳洋, 『全宋詩』中落第詩研究, 東北師範大學 碩士論文, 2016.

2) 折桂: 계수나무의 가지를 꺾는다는 뜻으로, 과거에 급제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3) 朱衣點頭: 과거에 급제함을 이르는 말. 宋의 歐陽脩가 試官이 되어 답안을 채점할 때, 등 뒤에서 붉은 옷을 입은 사람이 머리를 끄덕이는 듯 한 느낌을 받으면 그 글이 합격되었다는 고사에서 온 말이다. 『天中記』

4) 雁塔題名: 진사 급제를 뜻한다. 唐의 韋肇 이래로, 진사에 급제한 사람은 洛陽의 慈恩寺 탑에 이름을 적은 데서 유래한 말이다.

5) 呼婢聲: 급제를 알리는 소리를 뜻한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홍길주의 『睡餘瀾筆』에 나온다.

6) 點額: 잉어가 龍門을 거슬러 오르면 용이 된다고 하니, 科舉 등 시험에 합격하는 것을 登龍이라 하는 어원이 되었으며, 오르지 못하면 이마에 상처만 입게 되는 것을 點額이라 하는데 落榜을 뜻하는 말이다.

7) 孫山外: 과거에 낙방함. 宋의 孫山이 말석으로 급제하였을 때 그와 동행한 사람의 합격

연구도 주를 이룬다. 이와는 별도로 과거를 보러가는 감회를 적은 科行詩나 赴舉詩도 있다.

詩話에는 급제시와 하제시가 수록된 경우가 많다.<sup>10)</sup> 『東人詩話』에 급제시로는 夏竦의 試垣詩, 정지상의 시, 韋永貽의 試罷詩가, 하제시로는 李公遂와 임춘의 시가 실려 있다. 『詩評補遺』에 洪錫箕의 급제시가 실려 있고, 『方是間輯』<sup>11)</sup>과 『榕燈詩話』<sup>12)</sup>에도 급제시와 하제시가 나온다.

지금껏 하제시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sup>13)</sup> 필자가 확인한 하제시는 총 180제 204수이다. 우선 그동안 수집한 하제시를 목록으로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체를 개괄한 후 창작이 이루어진 時期와 詩體를 밝힌 뒤에 주제 구현 양상을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가

여부를 묻자, ‘손산의 이름 밖에 있다고 대답하였다는 故事에서 유래한 말이다.

- 8) 飲墨: 詩卷의 글이 형편없어 낙제함을 뜻한다. 『隋書』, 『禮儀志』에 “글자를 빼먹거나 誤字를 쓴 사람은 불러내어서 자리 뒤에 서 있게 하고, 글씨를 휘갈겨 쓴 사람은 먹물 한 되를 마시게 했다”라고 나온다.
- 9) 淸滿: 과거에 낙방한 선비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淸滿橋를 지나다 눈물을 흘렸던 일을 가리킨다. 韓愈의 『縣齋有懷』에, “서책 품고 황도를 떠나니, 눈물을 머금고 푸른 파수 건너노라.[懷書出皇都 銜淚渡淸滿]”라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
- 10) 詩話에는 과거 시험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형설기문』에는 일흔다섯에 增廣文科에 합격한 李震箕의 이야기가 나오고 『필원산어』에는 金恒光이 잉어의 보은으로 과거에 합격한 이야기가 나온다. 『西京詩話』에는 鄭以�가 魚變甲의 급제를 예언한 시가 나오며, 다양한 형태(부자, 형제, 조손이 함께 합격한 평안도인과 젊어서나 늙어서 급제한 평안도인)의 합격자 이야기가 나온다. 아울러 평안도의 과제시도 다루었다.
- 11) 1. 張浚의 『鄉儒觀光歎』이 나오는데 李天輔가 이 시를 크게 칭찬했다고 한다. 2. 朴翼齡이 같은 마을에 父子가 함께 진사 시험에 합격하자 축하하는 시를 써주었다. 3. 尹魯東의 낙방한 시구가 나온다. 4. 뭇나무꾼이 낙방시를 지적한다.
- 12) 1. 呂圭亨이 지은 시의 끝 구절이 예상치 않았는데 다음날 應製詩에 급제하였다. 2. 李啓五가 북한산에서 단풍을 구경하고 쓴 시구 탓에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고 죽었다. 3. 李建昌은 여규형이 대과에 급제할 때와 李重夏가 대과에 급제할 때 각각 축하시를 써 주었다. 여규형이 자신의 축하시를 따지자 이견창이 자신의 원고에서 이 시를 뺐다고 한다. 4. 鄭顯五의 하제시 한 수가 나온다.
- 13) 줄고, 『及第詩와 下第詩』, 『문헌과 해석』 55권, 문헌과해석사, 2011; 최년균, 정환중 (엮은이), 『낙제생들의 노래』, 월인, 2011.

하제시의 실재를 확인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2. 하제시의 현황과 창작 경위

하제시는 총 143명이 썼으며 180제 204수가 남아 있다. 下第를 의미하는 제목을 중심으로 정리했기 때문에 이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sup>14)</sup> 제목은 무관하나, 내용이 하제와 관련된 시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가장 비중이 높은 詩體는 7언절구와 7언율시였다. 연작시의 詩體는 다양하게 사용됐고, 대개는 2~4수로 구성되어 있다. 長篇 古詩의 경우에는 짧게는 10구에서 길게는 60구까지 있다.

7언율시는 가장 作詩하기 어려운 형식인데도 하제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자신이나 타인의 下第에 대해서 苦吟을 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고시나 연작시 등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시의 호흡을 길게 가져가서 하제의 심정을 충분히 써내려 갔던 것으로 보인다. 제목에 嘲나 戲가 붙은 것도 몇 편이 있으나, 하제자를 조롱하고 희롱하기보다는 自嘲의 느낌이 강했다.

하제시는 본인의 하제에 대한 심경을 作詩한 것과 타인의 하제를 위로하기 위해 作詩한 것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본인에 대한 것이 80제이고 타인에 대한 것이 89제여서 오히려 타인의 하제에 대해 위로한 작품들이 더 많다. 위로의 대상은 보통 지인, 가족과 친지 등으로 상대가 귀향할 때 써준 경우가 많았다. 상대가 위로의 목적으로 하제시를 쓸 경우 그 시에다 차운해서 화답하기도 했다. 시기별로는 고려시대 2명 3제 3수, 조선 전기 11명 17제 18수, 조선 중기 43명 52제 58수, 조선 후기 87명 106제 122수로, 단연

14) 全唐詩에 수록된 하제시 600여 수 중에서 표제에 落第, 下第, 不第 등이 명시된 경우는 250수 정도 된다. 任斌, 『唐代落第詩研究』, 華東師範大學 碩士論文, 2007, 1면.

조선 후기의 작품 수가 압도적이다.

作詩의 시점은 歸鄉 도중과 歸鄉 완료 후로 나눌 수 있는데, 귀향 도중의 작품들이 수적으로 더 많다. 하제 소식을 확인하고 歸鄉의 과정에서 복잡한 감정을 표출하다가, 귀향 후에는 현실이 되어버린 下第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인다.

중국의 하제시는 합격 발표가 봄에 있었던 탓에 대개 계절적 배경이 봄인 반면 조선은 계절적 배경이 봄과 가을이 많다. 식년시 이외에도 부정기적인 시험이 많아 계절을 특정하기란 사실상 어렵다. 하지만 식년시의 경우에 소과(생원 진사시)는 봄에 합격자 발표를 하고, 대과의 경우 초시는 가을에 복시는 봄에 전시는 가을에 각각 합격자 발표를 하기 때문에 계절적인 배경이 봄과 가을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sup>15)</sup>

詩體	단형	연작	비고
5언절구	18수	5언절구(2수) 1	
5언율시	23수	5언율시(2수) 4	
5언고시	9수 (10구, 12구, 14구(3), 32구, 36구, 44구(2), 52구)	5언고시 10구 (2수) 1 5언고시 12구 (3수) 1	
7언절구	45수	7언절구(4수) 1 7언절구(2수) 3	
7언율시	60수	7언율시(2수) 8	
7언고시	1수(60구)		
기타	5언배율(44구) 1 水調歌頭 1 장단구1	古律詩 (2수)	

15) 하제시에는 계절을 암시하는 꽃과 나무가 자주 등장한다. 봄은 桃, 李, 杏, 柳 등이고, 가을은 菊, 槐 등이다.

### 3. 하제시의 주제 구현 양상

#### 3.1. 실패로 인한 복잡한 감회

실패는 스스로에게 많은 생각의 시간들을 요구한다. 그 과정에서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분노, 슬픔과 미련, 부끄러움과 아쉬움 등의 감정이 다채롭게 드러난다. 실패는 자신의 내면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자신을 확대하는 잔인한 시간이 되기도 했다. 그들은 하제의 감회를 어떻게 드러내고 있을까?

올해에도 뜻을 잃어 나그네 맘 깜짝 놀라니,  
외로운 여관에서 밤새껏 잠 못 드네.  
계룡산에 구름 껴서 푸른 산 빛 묻히었고,  
금강의 높은 물결 찬 소리 울리었네.  
온갖 마귀 장난질에 내 운명 궁하게 했고,  
모든 일 어그러져 이 인생 탄식케 하네.  
북쪽으로 고향 향해 애오라지 눈길 보내니,  
저문 날 비바람에 돌아갈 길 어두웁네.  
今年落魄客心驚 孤館通宵夢不成  
龍岳重雲埋翠色 錦江層浪吼寒聲  
千魔戲劇窮吾命 萬事乖張歎此生  
北向家鄉聊送目 暮天風雨暗歸程

- 金得臣(1604~1684),

『공주로 가는 도중에. 낙제한 뒤에 시를 짓는다[公山途中 下第後作].』

김득신은 노둔함을 勤學으로 극복한 일화로 유명한 인물이다. 그의 과거 시험 도전도 순탄치 않았다. 39세에 겨우 소과인 진사시에, 59세가 되어서야 대과에 합격했다. 그는 수많은 실패를 겪었지만 下第에 대한 시로는 위 작품이 유일하다. 이 시는 김득신이 公州 쪽에서 열린 鄉試에 응시하였다

가, 낙방 뒤에 집이 위치해 있는 木川으로 가면서 쓴 7언 율시 두 수 중에 첫 번째 시이다.<sup>16)</sup>

1,2구에서는 落魄과 孤館이란 시어를 써서 자신의 쓸쓸한 심정을 드러냈다. 3,4구에서는 重雲과 層浪을 통해 현실의 암담함과 고단함을 말했다. 5,6구에서 온갖 마귀의 장난질로 자신이 불우한 운명이 됐고, 이번 생애는 모든 일이 망가졌다는 탄식에서 그의 절망감이 얼마나 깊었었는지 알 수 있다. 窮이란 한 글자로도 하제자의 심경을 대변하기에 충분하다. 다른 시에서도 窮, 窮通, 窮愁, 窮達, 窮寒 등으로 빈번하게 등장한다. 7,8구에서는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는 않는 우울한 歸路의 심경을 담았다.

일 년 내내 농가에는 즐거움 넘치나니  
비 오면 삼질 하고 달 뜨면 김을 매네.  
부모와 처자식이 한 방에서 같이 살며  
태어나 책 반 줄도 읽은 적 없었다네.  
終歲田家樂有餘 雨中荷鋤月中鋤  
父母妻孥同一室 生來不讀半行書

- 尹鍾億(1788~1837),

『과거에 낙방하고 돌아오는 길에 광정을 지나다가(下第歸路過廣亭)』

윤종억<sup>17)</sup>의 위의 시와 『渡錦江』 두 편이 『大東詩選』에 남아 있는데, 『醉綠堂遺稿』에는 실려있지 않다. 하제시는 歸鄉의 과정에서 짓는 경우가 많아 여관이나 나루터 등 여러 장소에서 만난 사람들이 자주 등장한다. 실의에 빠져 돌아오다 우연히 농가를 찾게 된다. 이들은 농사에 종사하며 일자무식

16) 나머지 한 편은 다음과 같다. 腐儒飲墨谷神驚, 題柱心期又未成. 鷄岳葉凋看石骨, 熊津風急聽波聲. 囊中詩草千篇富, 鏡裏衰毛兩鬢生. 羸馬不前頻蹶足, 黃昏始踏木州程.

17) 尹鍾億은 본관은 해남이고 자는 輪卿이며 호는 醉綠堂이고 초명은 尹鍾璧이다. 문집으로 『醉綠堂遺稿』 1책이 남아 있다. 정약용의 문하에 들어가서 수학하였다. 자세한 생애는 확인할 수 없다.

에다 3대가 단칸방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행복해 보인다. 이들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삶에 대해 자문해 본다. 經世하겠다는 다짐이 헛된 욕망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평범한 농군의 삶을 통해 배우게 된 것이다. 그는 「渡錦江」에서는 安民하자던 거창한 포부가 뱃사공보다도 못한 신세라고 한탄했다.<sup>18)</sup> 張錫英도 「下第出崇禮門」에서 산밭에서 풀을 캐는 노인이 되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다.<sup>19)</sup> 이처럼 실패는 자신이 욕망하던 삶과 전혀 다른 삶으로 시선을 돌릴 수 있게 해주었다.

날마다 세 번 탄식 앓는 날 없으니,  
 두 사람 함께 집에 있게 되었네.  
 다시 한 번 槐市를 지나가면서,  
 계수나무 꽃 핀 것만 바라다 볼 뿐.  
 無日不三嗟            二人俱在家  
 再經槐市裏            空見桂開花

- 孫肇瑞(?~?), 「낙방하며[下第]」

손조서는 본관은 一直이고 자는 引甫, 호는 格齋, 勉齋이다. 등장하는 두 사람이 정확히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없지만 남편과 아내로 보아야 할 것 같다. 부부가 함께 있자니 나오는 것은 대화가 아니라 한숨뿐이었다. 여기서 槐市는 槐館이라고도 부르는데 成均館을 의미한다. 성균관을 다시 지나다 보니 합격자들이 눈에 띈다. 하제자가 급제자를 볼 때 부러움과 자신에 대한 초라함을 함께 느끼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sup>20)</sup> 다행스럽게도 그는

18) 尹鍾億, 「渡錦江」: 錦江江水碧於油, 雨裏行人立渡頭. 初年濟世安民策, 不及梢工一葉舟.

19) 張錫英, 「下第出崇禮門」: 岐路紛紛西復東, 萬人如海盡恩恩. 早知歸事重如此, 差可山田採草翁.

20) 다음의 한시에서는 하제자가 귀향길의 심경을 노래하면서 급제자의 귀향길과 대비하고 있다. 鄭圭永, 「下第人」: 洛陽春鳥弄啁還, 下第幾人度此間. 飛過五劇三條路, 啼去千



결국 1432년에는 생원시에, 1435년에는 문과에 각각 합격했다.

매년 패수를 건너가면서  
 행로난 길게 빼어 노래했었지.  
 남산을 여전히도 잊지 못하여  
 열 걸음에 백 번쯤 돌아다보네.  
 瀾水年年渡 長歌行路難  
 南山猶不忘 十步百回看

- 李泰鉉(1838~1904),

「하제한 뒤에 한강에서 입으로 불러서 짓는다[下第後 漢江口號],」

上京의 부푼 꿈은 歸鄉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통상 귀향의 과정에서 자신의 실패를 절감하게 된다. 그래서 한양을 떠나오면서의 감회를 담은 시들이 많다. 한양의 랜드마크 漢江(瀾水, 漢水)이나 南山(終南山) 등은 매우 빈번하게 등장한다. 또, 미련을 암시하는 시어인 回가 回首, 回看, 空回, 回望 등으로 등장했다. 한양은 절망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결코 외면할 수 없고 반드시 다시 돌아와야 하는 공간임을 말해주고 있다.

하제시에서 빈번히 등장하는 시어로 羞와 悲를 들 수 있다. 이 시어들은 그들의 하제 과정에서 느끼는 감정을 대변해 준다. 하제자는 하제를 처음 확인하는 순간부터 눈앞의 현실로 인정할 때까지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세상에 대한 분노나 부끄러움, 실패에 대한 날것 그대로의 슬픔과 아쉬움, 성공에 대한 미련 등이 고스란히 노출된다.

### 3.2. 가족에 대한 미안함

합격의 순간에는 가족을 떠올리며 그간의 희생을 보답하리라 다짐을 한다. 반면 불합격의 순간에는 가족들의 희생과 도움이 무위로 돌아갔다는 자

紅萬紫山. 林影因風花影動, 笛聲盡日水聲聞. 得意男兒如許過, 銀鞍白馬擡華顏.

책에 괴로워했다. 합격과 불합격의 어떤 순간이든 가족이 가장 먼저 떠올려 지기 마련이다. 그들은 자신의 실패를 확인하며 가족에 대해 어떠한 심경을 남겼을까?

오래 떨어져 있어 어머니 소식 못 듣다가  
 놀라 기뻐 편지 뜯자 눈물이 옷 적시네.  
 간곡히 여러 번을 응시 더듬 탄식했고  
 은근히 누차 詩書 읽기를 권면했네.  
 도간의 어머니처럼 머리 잘라 손님 대접 애썼지만  
 詩禮 배우지 않은 백어처럼 뜨락 지나며 훈계 들어 부끄러웠지.  
 머리 돌려 바라보니 장안은 어디인가?  
 연못에 봄풀처럼 깊은 꿈에 빠져 있네.  
 慈闈音信久離餘 驚喜開緘淚滿裾  
 密勿屢歎遲選舉 慙慙且勉讀詩書  
 留賓截髮勤陶母 不學趨庭愧伯魚  
 回首長安何處是 池塘春草夢蘼蘼

- 沈之漢(1596~1657),

「하제 뒤에 부모님 편지를 받고 한 편의 율시를 써서 두 아우인 지연, 지효에게 부치다[下第後得親書 賦一律 寄示二弟之演之浩],

과거 시험에 떨어진 후 어머니의 편지를 받고 일어난 감회를 썼다. 어머니의 편지에서 촉발되어 과거 시험에 떨어졌다는 사실과 어머니의 정을 연결시킨 게 이 시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한양에서 오래 준비하여 시험을 보았으나 낙제한 후 어머니의 편지를 받고는 반갑고도 아쉬운 감정이 한꺼번에 뒤섞였다. 密勿과 慙慙에서 실패를 맞본 자식을 배려하는 어머니의 깊은 속내를 알 수 있고, 歎과 勉이란 두 글자에서 자식의 아픔에 대한 어머니의 공감과 격려를 느낄 수 있다. 陶侃의 어머니인 陶母와, 孔子의 아들 伯魚의 고사를 들어 어머니는 제 역할을 다 했지만, 부모의 가르침

을 제대로 받들지 못한 자신을 책망하고 있다. 장안으로 대변되는 입신양명의 희망은 멀리 사라져버렸고, 자신은 “연못의 봄풀은 아직 봄꿈에서 깨어나지도 못했는데(未覺池塘春草夢)”의 봄풀처럼 여전히 꿈속에 있음을 자책했다. 이 시를 두 아우에게 보낸 것을 보면, 과거 시험이 가정의 중대사이고 이를 위해 온 가족이 노력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시는 과거를 둘러싼 가족 사이의 시선과 작자의 심리적인 무게를 비교적 섬세하게 알려준다.

찬 밤에 책상에는 사람 없음 서글픈데,  
 천문에선 새롭게 방 걸렸다고 말 전하네.  
 이미 이 몸 천 길이나 떨어진 것 알았으나,  
 기이한 운수 한 가문에 같게 된 것 한스럽네.  
 세월은 빨리 흘러 곧 늙어감 재촉했는데,  
 득실이 어지러우니 끝내 누가 진짜인가.  
 형제 함께 불우한 게 가장 큰일이니,  
 할 말 없어 어머니를 위로할 수 없구나.  
 寒宵齋榻悄無人 傳道天門揭榜新  
 已覺此身千仞墜 還嗟奇數一門均  
 光陰袞袞方催老 得喪紛紛竟孰眞  
 最是弟兄俱落拓 辭窮莫慰北堂親

- 李眞望(1672~1737),

「낙방하는 날 밤에 동병상련인 십형과 십오제에게 적어 부친다  
 [下第夜, 錄寄十兄十五弟諸同病者],」

합격자 명단이 게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때 자신뿐 아니라 친척 2명도 함께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나이에 대한 뒤늦은 자각이 들면서 합격에 대한 열망이 정당한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들었다. 자신의 불합격 소식만으로도 면목이 없을 텐데, 가문의 형제들이 모두 떨어졌다는 소식을 어머니께 전할 길이 더 막막했다. 그는 나이 마흔 살이던 4월에 文科에 급제했

다. 7월에 文學이 되었으나, 辨誣疏에서 宋時烈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擬望되지 못했다. 어렵게 시험에 붙었지만 시련은 끝나지 않았다. 그의 가문 형제들의 후일담은 알 길이 없다.

포구에 서풍 불어 배 띄우기 좋은데  
 동쪽 고향 바라보니 구름 안개 아련하네.  
 야윈 아낸 푸른 산을 지나감 안타까워하고  
 어린 이들 조는 물새 폭 빠져 구경하네.  
 소내에 왕래함에 본디 절로 즐거운데  
 녹문산에 은거할 날 어느 때나 돌아올까.  
 출사할까 은거할까 밤 새워 따져 봐도  
 구양수 영미 전답 내게 있지 아니하네.  
 浦口西風好放船 鄉園東望杳雲烟  
 瘦妻解惜青山過 穉子耽看白鳥眠  
 菖葦往來元自樂 鹿門畊隱定何年  
 細將出處通宵議 只少歐陽穎尾田

- 丁若鏞(1762~1836),

『초여름에 처자를 거느리고 소내로 돌아오다[孟夏領妻子還菖川]』

다산은 下第詩와 及第詩를 가장 많이 남긴 경우에 해당한다.<sup>21)</sup> 1783년

21) 그가 남긴 하제시는 다음과 같다. 『銅雀渡』는 1779년(당시 18세) 9월에 監試에서 낙방하고 아내와 함께 아버지 丁載遠의 임지인 和順으로 내려가는 길에 한양의 동작나루를 건너며 감회를 읊은 것이다. 『倦遊』는 1781년(당시 20세) 4월 하순에 처가에 머물면서 성균관 陞補試에 응시했으나 낙방한 뒤에 썼다. 『感興 二首』는 1786년(당시 25세) 2월 무렵 별시 초시에 합격했으나 이어 치른 복시에 낙방하고 난 직후 읊었다. 『人日誠正閣上謁, 退而有作』은 1789년(당시 28세) 1월에 문과에 최종적으로 합격하지 못했을 때 썼다. 그가 남긴 합격시는 다음과 같다. 『秋日乘舟出豆毛浦』는 1781년(당시 20세) 8월 두모포에서 성균관 庠製에 합격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썼다. 『國子監試放榜日志喜』는 1783년(당시 22세) 2월 증광감시 초시에 經義 과목으로 합격한 뒤 읊었다. 『司馬試放榜日, 詣昌德宮上謁, 退而有作』은 1783년(당시 22세) 4월에 증광감시 복시의 합격 소식을 듣고 기쁜 심경을 적었다. 『冬日熙政堂上謁 退而有作』은 1785년(당시 24세) 11

4월, 會試에 합격하여 처음으로 正祖를 알현하고, 1786년에는 별시 복시에 낙방한다. 당시에 『春日舟還菖川』이라는 시도 썼다. 별시 초시에 합격하고 경세의 꿈을 실현할 수 있으리란 희망에 부풀기도 했지만 끝내 경세할 기회를 주어지지 않았다. 가장의 가족들에 대한 시선이 瘦와 穉에 담겨 있다. 어린 아이와 야윈 아내를 책임져야 하지만 기회는 달아나 버리고 말았다.

5~8구에서 다산의 고심은 더 깊어진다. 張志和와 龐德公처럼 은둔하여 살고 싶다는 강한 충동도 느껴본다. 세상을 등질 것인가? 다시 세상에 몸을 맡길 것인가? 그러나 구양수처럼 의지할 만한 경제적 기반이 없으니 다시 과거 시험에 도전하는 수밖에 없었다. 다산은 2년 뒤에 드디어 문과에 급제했다.

합격과 불합격의 반복 속에서 가족은 짐이 되기도 하고 희망이 되기도 했다. 실패는 온전히 개인의 몫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고통으로 전가된다. 윤기의 『낙방한 뒤의 회포[又作絶句]』에서 “아내는 부끄러워 말을 못하고, 계집중은 성이 나 소리 지르네. 두 가지는 무시할 수 있다지만, 부모님께 죄송함 건달 수 없네[妻見羞無語, 婢聞嗔有聲. 二者皆閑事, 不堪愛日情]”라 했듯이, 모든 가족에게 다 미안하지만 부모님에 대한 죄송함을 가장 크게 드러냈다. 많은 하제사에서 처자식보다는 부모를 대상으로 죄송함을 표현하고 있다.

### 3.3. 낙방한 사람을 위한 위로

본인의 하제에 대해 심경을 다룬 것보다 타인의 하제에 대해 진심어린 위로를 건네는 작품들이 더 많다. 하제는 士人이라면 누구라도 한번쯤 경험했던 일이었기에 타인의 실패에 더욱 공감하기 쉬웠을 것이다.

그대 재주 뛰어나서 참으로 출중하니

월에 黃柑製에 합격한 뒤 감회를 읊었다. 『正月廿七日, 賜第熙政堂上謁, 退而有作』은 1789년(당시 28세) 1월 到記試에 수석으로 합격한 뒤 기쁨을 읊었다.

지금에 제일가는 인재라고 말들 하지  
 거침없는 문장은 자건을 경시하고  
 도도한 답설은 진등을 작게 여기네.  
 천리마가 잠시 넘어졌다 풀 죽을 것 없으니  
 날개 잠시 접었으나 끝내 하늘 높이 날으리.  
 상감께서 연이어 과거 연다 들었으니  
 틀림없이 가장 높은 성적으로 천화 꺾으리  
 君才卓犖能超乘 俊彩于今第一稱  
 倒峽詞源輕子建 懸河談說小陳登  
 霜蹄暫蹶非爲失 雲翰雖垂竟有騰  
 聞道聖君連策士 天花須折最高層

- 李應禧(1579~1651),

「과거에 낙방한 김 상사 중사에게 위로 삼아 주다.

김 상사 중사는 김채문이다[慰贈金上舍仲思下第 卽金蔡文],

전반부는 김채문의 뛰어난 재주에 대해 논하고 있다. 사람들이 김채문의 재주가 출중해서 제일가는 인재라고 칭찬을 한다면서, 김채문을 문장가로 이름이 높았던 曹植이나 陳登에 빗댔다. 후반부에는 위로와 격려를 담고 있다. 김채문을 천리마에 비유하면서 지금의 실패를 만회하여 종래에는 꼭 성공할 것이라고 힘을 주고, 다음번 과거 시험에서는 장원급제를 할 수 있다며 격려하고 있다. 이처럼 상대방의 재주에 대한 칭찬과 인정을 통해 위로와 격려를 하는 것은 하제시에서 보여주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에 속한다.

문 앞에 도리에는 잎 떨어는 바람부니,  
 문장으로 궁한 운명 예로부터 똑같았네.  
 예전부터 글방에서 많은 선비 늘렸지만  
 몇 번 과거 응시했던 이 노인 애석해 했다.  
 부 지어 올린 것은 또 붉은 떡에 지워졌고  
 시 쓴 것은 비단 감쌌 기다리기 어려웠네.

누가 슬퍼하라 세상에 羅昭諫(羅隱의 자)이

흰 머리로 합격자 명단에 이름 없음을.

桃李門前落葉風 文窮九命古來同

自從庠塾傾多士 幾向公車惜此翁

獻賦又遭紅勒帛 題詩難待碧紗籠

誰憐四海羅昭諫 白首無名蕊榜中

- 李尙迪(1804~1865),

「하래는 나이가 이제 일흔 살인데 또 낙방하여서

시를 지어 주어 위로해준다[鶴來年今七十 又下第矣 慰之以詩],

이 시는 이상적이 이청을 위로하기 위해 쓴 것이다. 李田靑(1792~1861)은 본관은 경주이고 자는 琴招, 호는 靑田이었다. 鶴來라는 다른 이름으로도 불렸으며 다산의 강진 유배 시절의 제자였다. 복사꽃과 오얏꽃 같은 봄꽃에 가을바람이 분 것으로 이청의 낙방 사실을 적시하고, 그의 곤궁한 운명을 王世貞이 말한 「文章九命」에 빗댔다.<sup>22)</sup> 실력은 출중했지만 과거 시험과는 큰 인연이 없었다며 賦는 紅勒帛<sup>23)</sup>의 고사를, 詩는 碧紗籠<sup>24)</sup>의 고사를 각각 써서 부와 시 모두에서 낙방했음을 밝혔다. 마지막에는 唐나라 때 사람인 羅隱의 예를 들어 끝내 과거에 합격하지 못한 이청의 운명을 애석해했다. 낙방한 노인에게 알맹이 없는 무책임한 격려보다 그저 합격에 인연이 없었을 뿐이라며 담담하게 위로를 건네고 있다. 이 해에 이청은 죽었

22) 「文章九命」은 先秦 시대부터 唐宋까지의 시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貧困, 嫌忌, 玷缺, 偃蹇, 流貶, 刑辱, 夭折, 無終, 無後 등 9개 조목으로 분류하여 부정적 시각에서 서술한 글이다.

23) 紅勒帛: 붉은 비단으로 만든 허리띠를 의미한다. 宋나라 때 劉幾가 글을 지을 때 險僻한 단어를 많이 썼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모방하여 하나의 풍조가 되었다. 歐陽脩가 이러한 풍조를 고치려고 하여, 험박한 말을 많이 쓴 어떤 舉子의 답안을 처음부터 끝까지 붉은 먹으로 지워 버리고는 ‘홍늑백’이라고 하였다. 나중에 보니 유기의 답안이 있다고 한다. 『夢溪筆談』

24) 紗籠: 碧紗籠으로, 옛날 귀인과 명사가 지어 벽에 걸어 놓은 시문을 靑紗로 덮어서 오래도록 보존하며 존경의 뜻을 표현 것을 말한다. 「唐摭言」

고 이상적인 그를 위해 만시나 다름없는 시를 써 주었다.<sup>25)</sup>

천리마 한번 미끄러지니 어떠한지?  
 전원으로 갈 생각에 처음 뜻 읊었다네.  
 온 세상이 제나라 객의 술 재주 다투면서  
 그대 마구 영 사람의 글 말함 비웃었네.  
 어지러운 술자리에 등잔불 흔들리고  
 질탕한 담소 속에 빗발이 잦아드네.  
 왜나무 잎 누래져 가을이 또 지나려는데  
 서풍에 머리 돌리니 흥 아직 남아있네.  
 霜蹄一蹶意何如 歸計林園賦遂初  
 舉世爭工齊客瑟 笑君謾說郢人書  
 壺觴錯落燈花亂 談笑淋漓雨脚疎  
 又近槐黃秋一度 西風回首興猶餘

- 金允植(1835~1922),

『도헌 이형의 과거 시험 낙방을 조롱하다[嘲道軒李兄下第]』

앞선 시에서 보았듯 하제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시는 대개 격려와 위로가 주를 이룬다. 상대의 뛰어난 재주를 칭찬하면서 세상에 쓰이지 못함을 함께 안타까워했다. 이 시는 다른 하제시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제목에 嘲가 있지만 하제자에 대한 조롱이라기보다 과거 제도에 대한 조롱으로 보여서, 결과적으로 다른 형태의 격려와 위로가 된 셈이다. 세상의 세태를 비판하면서 우회적으로 상대의 가치를 높였다. 지인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한 빗속의 술자리를 유쾌하게 그려냈다.

하제자를 천리마인 霜蹄에 비유한 경우가 많이 보인다. 이처럼 하제자를 동물에 비유한 경우로는 豹, 鵬, 麟, 雁, 驥, 馬, 驂, 神魚, 大鳥 등이 있으

25) 『聞鶴來墜井而歿』: 窮途一跌赴黃泉, 瀝洒天涯酌水仙. 七十年來多著述, 如何絕筆井觀編. 君近著井觀編若干卷, 豈其書名成讖耶.



며, 여기에 孤와 病, 羸와 蹶 등 고난이나 고초를 상징하는 시어로 수식한 경우가 많았다. 이밖에 玉(白璧, 荊山)이나 劒(豐城)<sup>26</sup>으로 하제자의 뛰어난 재주를 표현하거나 雨, 波, 風, 潮, 煙, 泥 등으로 하제자에게 닮친 고난의 상황을 드러내기도 했다. 자신이나 자신의 노력을 자학적으로 弊帚, 炊沙 등을 사용하여 표현하는 등 하제시 특유의 意象이 보이고 있다.

한림원 앞 새벽길에 말 나란히 가다가  
 시끄러움 피해 골목 뒤에 몸을 숨기네.  
 襴衫을 차려 입은 200명에게 묻노니,  
 그 누가 돈독한 정 우리 부부 같겠는가.  
 金門曉色馬頭齊 爲避紛喧匿巷西  
 借問襴衫人二百 篤情誰似我夫妻

- 張混(1759~1828),

『司馬試를 放榜한 날, 장난 삼아 짓다[司馬放榜日 赴直戲題]』

시에는 다음과 같은 逸話가 附記되어 있다. 兪 아무개란 사람이 높은 관리를 우연히 만났는데 어렸을 때 친구였다. 같이 閥閥의 자손이었지만 한 명은 현달했고 다른 한 명은 곤궁하게 되었다. 유 아무개가 스스로 위로하며 저 친구가 높은 벼슬에 올랐지만 처를 사랑함에 있어서는 자신을 따라잡을 수 없다고 하였다.<sup>27)</sup> 이 시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懷材不遇를 스스로 위로한 셈이다. 이처럼 예전에 동문수학한 사이였다가 당락이 엇갈린 뒤 달라진 처지에서 만나 얻게 된 감회를 쓴 작품도 있다.<sup>28)</sup>

26) 이외에도 落魄, 屠龍, 題柱, 蓬萊, 點額, 龍門, 夢 등의 단어가 많이 보인다.

27) 本朝有兪生某者, 出遇達官, 奔避竊視則少時伴. 慨然曰‘我與彼同是閥閥. 彼則顯榮, 我乃窮困.’, 不勝憤慨. 既而自解曰‘今世之愛妻, 宜莫若我者, 彼雖官盛, 其愛妻豈勝我哉.’

28) 金昌協, 『秋日 往柵島 登過去船 船中先有一老儒 乃洪川進士南宮垣也 曾在壬戌秋

하제한 사람들의 실패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작품들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sup>29)</sup> 여기에는 상대의 아픔에 대한 깊은 공감과 미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깔려 있는 것이다. 몇몇 작품들은 戲作적인 성격이 있지만 그것은 상대방의 실패를 조소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시종 무겁지 않은 내용으로 또 다른 위로와 격려의 의미를 싣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2.4. 과거를 그만두다

여러 가지 이유로 科擧를 포기하였다. 과거 시험에 대한 염증, 지속되는 실패로 인한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불가피한 정치적인 이유 등을 들 수 있다. 포기하는 나이도 일정치 않은데, 매우 이른 나이에도 큰 의미를 찾을 수 없어 응시를 접기도 하고, 중년이 넘어서 자신의 역량에 한계를 느끼며 포기하기도 했다.

보배로운 거울 같아온 것이 사십 년인데,  
그 빛이 멀찍이 중천의 해 비추었네.  
과장에서 값 기다려도 알아주는 이 없었으니  
용강에 돌아가서 벽 위에 걸어 두리.  
寶鏡磨來四十年 光輝迥照日中天  
三場待價無人識 歸去龍岡壁上懸

- 李熙奭(1820~1883),

「낙제를 하고 회포를 쓴대[下第懷述 丁巳],」

李熙奭<sup>30)</sup>이 1857년(38세 때) 과거 시험을 포기하면서 쓴 시이다. 실력은

與余同榻于道峰書院 其年 余登第 君獨不偶 今又隨貢上京 口占一絕以贈; 清江偶上孝廉船, 華髮相看異昔年. 回首匡山舊讀處, 碧雲秋色故依然.

29) 상대방이 자신의 하제를 위로하기 위해 보내준 시에 화답하는 시들도 있다. 金澤榮, 「奉和天遊老人慰下第」: 終南回首歎飄蓬 搖落寒山閉戶中 還是一籌誰得失 春官不遇遇詩翁

합격하기에 충분했지만 과거 때문에 청탁하는 일을 부끄럽게 여겨서 하지 않은 탓에 번번이 실패했다.<sup>31)</sup> 자신을 ‘寶鏡’이라 표현하며 자부심을 드러냈지만 과거 합격이란榮譽는 끝내 자신의 편이 아니었다. 자신의 집인 龍岡에 돌아가서 寶鏡을 벽에 걸어 두겠다고 과거 포기를 암시하고 있다. 廢科 결정에 대한 자탄이나 후회가 전혀 없어 보이는 점이 인상적이다.

20년 동안 이리저리 분주히 다니면서  
 함부로 득실 따져 하늘을 원망했네.  
 돌아와서야 고개 늦게 돌린 것 깨달으니  
 풍파 맞아 헛되이 눈물 흘림 두렵구나.  
 奔走東西二十年 妄將得失怨蒼天  
 歸來始覺回頭晚 恐被風波枉汨然

- 夏時贊(1750~1828),  
 『과거를 그만두다[廢科擧]』

夏時贊<sup>32)</sup>이 지은 「絶糧」, 「生契吟」, 「雨中偶吟」 등의 시를 보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sup>33)</sup> 곡식이 떨어지자 아이의 울음을 달래고

30) 자는 周輔, 호는 瑞樵이며, 光州의 雙柳에서 출생하여 2세 때 남원의 龍岡으로 옮겨와 살았다. 1862년에 올린 「三政策」과 1866년에 올린 만동묘 철거 반대 상소에서 볼 수 있듯 시정과 의리에 밝은 학자였다.

31) 奇字萬, 『瑞樵李公行狀』: 약관의 나이에 이미 과거 시험장에서 명성이 있었으니 좌우로 酬應하면서 묻는 말에 척척 대답했다. 그러나 청탁하여 팔리기를 구하는 것을 매우 부끄러워하였으니 이 때문에 과거에 급제하지 못했다. …… 이때부터 벼슬에 나아가려는 뜻을 끊었는데 또한 그러한 뜻을 스스로 표방한 적도 없었으며, 매번 벗들에게 이끌려 나갈 때면 시를 지어 노래하며 길을 떠나 득실에 개의치 않았다. 弱冠, 已有場屋聲, 左酬右應, 問無不答. 干囑求售所深恥, 是以不第. …… 自是絶意進就, 而亦未嘗自立標榜, 每爲知舊所牽, 風味出脚, 得喪不以介意.

32) 그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백도근, 「대구 서인 열암 하시찬의 삶과 학문」, 『윤리교육연구』 27집, 한국윤리교육학회, 2012; 이상주, 「華陽九曲圖와 夏時贊의 華陽九曲屏風詩에 대한 고찰」, 『고전과 해석』 21집, 고전문학한문학회, 2016.

33) 「絶糧 戊戌」: 夫子當年厄蔡陳, 吾非樂道敢安貧. 枕書臥夢淮陰飯, 滿腹經綸慰室人;

아내의 고생을 위로해야 했다. 결국 17,8세부터 시작된 과거에 대한 꿈을 마침내 37세가 되어서야 내려놓을 수 있었다. 더이상 가족의 희생으로 자신의 꿈을 지속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간의 마음 고생이 여실하게 드러나는 작품이다. 하제시에서 서글픔의 정도를 ‘十年’이나 ‘千里’ 등 數量詞로 나타내는 것은 매우 흔한 방법인데, 여기서는 ‘二十年’으로 표현하고 있다.

폐과의 시기와 원인은 각자의 사정에 따라 달랐다. 아주 일찍 출사의 꿈을 접거나 아니면 여러 번 낙방을 겪으면서 자신의 한계를 느껴 그만두기도 했다. 鄉儒 黃胤錫이 24~46세까지 총 26차례 京科에 응시했다가 1776년 48세로 마침내 廢科하였다.<sup>34)</sup> 한평생의 열망이 다 소진된 셈이다. 개인에 따라 경제적 정치적 이유로 폐과의 원인은 모두 다를 수밖에 없다. 『좌계부담』에 보면 金壽增이 庶弟 金壽能의 합격 호명을 잘못 듣고 나갔다가, 심하게 부끄러움을 느껴서 폐과했다는 기록도 보인다.<sup>35)</sup>

영주 땅 나그네 한양성에서 병이 들어  
지팡이에 의지하여 억지로 일어나네.  
북두성은 하늘에서 자리를 옮겨가고,  
남산에 낀 안개는 새벽되어 걷혔구나.  
재주는 연석 같아 쓸모없음 탄식하나  
기상만은 용천검 같아 아직도 가라앉지 않았단네.  
춘당대 향하여서 내려가 바라보니  
살구꽃 피는 시절에 다시 또 청명이네.

『生契吟』: 礪石非吾望, 其如卒歲虞. 尙儲瓶二粟, 選勝古人無; 『雨中偶吟』: 寒雨垂垂夕漸昏, 飢兒索飯哭推門. 愁來點檢中廚事, 白粥生涯白屋村.

34) 유영옥, 『鄉儒 黃胤錫의 京科 응시 이력』, 『大東漢文學』 44집, 대동한문학회, 2015.

35) 『左溪哀談』: 金壽增, 以兩弟之故, 名聲寥寥, 老於場屋, 而不以爲慨. 至顯廟朝癸丑春塘臺, 壽增之庶弟壽能入格, 而急急呼名之際, 壽增錯入其中, 渾脫所着, 捉致御前, 其弟壽興壽恒在於侍衛之列, 見其伯氏之誤爲入來, 蒼黃下庭曰, 壽能爲之, 伯氏胡爲乎來哉. 公無聊退出. 故自此廢科, 及其兩弟之遭禍, 獨享遐壽, 超然世網之外, 科名落莫, 安知非塞翁之福耶.

瀛州客病漢陽城 賴得枯藤強起行  
 北斗星辰天上轉 南山雲霧曉來晴  
 材如燕石嗟無用 氣似龍泉尚不平  
 試向春塘臺下去 杏花時節又清明

- 李漢雨(1823~1881), 『병중에 읊다[病中吟]』

李漢雨<sup>36)</sup>는 鄉試에는 합격했지만 대과에는 연거푸 낙방했다. 결국 과거를 포기하고 제주로 돌아가게 된다. 그는 한양에서 시험을 치르기 위해 8번이나 상경했었고 마흔 살 무렵까지 과거 공부를 했지만 끝내 꿈을 이룰 수는 없었다. 제주로 돌아가는 여정에서 남긴 여러 편의 시들은 그가 느낀 下第의 감정을 대변해 준다.<sup>37)</sup>

이 시는 병중에 자신을 돌아본 감회를 읊었다. 말미에서 춘당대를 언급한 것을 보면, 제주에서 한양에 와 있는 동안 병이 들어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이다. 새벽에 일어나 하늘과 남산을 바라본다. 하늘에 보이는 북두성의 이동으로 장기간 한양 체류 중인 자신의 처지를 확인한다. 제주는 부족하지만 기상만은 아직도 늠름하다고 자부해 본다. 과거 시험장이었던 살구꽃 핀 춘당대에 화창한 봄날이 가득 찬 것을 보니 처연한 감정이 더욱 짙어진다. 인생에 대한 迷妄과 미래에 대한 茫然한 감정을 드러냈다.

특히 말구에서 쓰인 ‘杏花’, ‘時節’, ‘清明’이라는 시어는 杜牧의 『청명』을 연상시키며, 시 속에 나오는 “길을 걷는 행인은 낮이 끊어지려 하네.[路上行人欲斷魂]”의 정서도 환기시킨다. 작지는 세월의 흐름을 탄식하면서, 동시에 과거를 준비하며 보낸 수없이 많은 봄날의 辛酸을 떠올렸다. 장기간

36) 이한우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이 참고가 된다. 김새미오, 『梅溪 李漢雨의 詩文學攷』,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석사논문, 1999.

37) 『思家』: 我家遙在海山中, 橘竹桑麻綠映紅. 若對琴碁隨所好, 眼前何時不春風; 『待舟』: 五日過期十日期, 期期不到到何時. 水千里又山千里, 山亦難行水亦遲; 『自嘲』: 三十讀書四十遊, 浮雲如可執鞭求. 滄溟八渡緣何事, 自笑歸家近夜羞.

한양에서 고군분투했으나 끝내 급제하지 못한 심경을 담담히 담아낸 이 작품에서도 조선 시대 舉子의 심리적인 자화상을 볼 수 있다.

된바람이 매섭게 근심어린 얼굴 칠 제,  
 병든 기러기와 아원 말 짝지어 돌아가네.  
 온갖 일 제 운명이 아님이 없었으니,  
 한 평생 그런대로 시골에 누우려네.  
 공명은 이미 사람 늙음 재촉함 깨닫게 되었으니  
 조화옹이 어찌 능히 내 한가함 뺏을 수 있겠는가.  
 두 눈 아직 안 어두워 그나마 다행이니,  
 오래된 매화 핀 집에서 주역에 주를 내려 하네.  
 北風慘慄撲愁顏 病鴈羸驂作伴還  
 萬事莫非關已命 百年聊欲臥雲山  
 功名已覺催人老 造化焉能奪我閑  
 差喜雙瞳猶未暗 擬將註易古梅間

- 李夏坤(1677~1724),

『낙방한 뒤에 남쪽으로 돌아가면서 회포를 쓰다

[下第後, 南歸述懷]

이하곤은 1708년(32세 때) 소과에 장원으로 합격한 뒤, 1721년(45세 때) 당쟁으로 時事가 어지러워지자 科業을 포기하였다. 이 시는 1714년부터 1717년까지 쓴 시를 모아놓은 冊6에 속해 있다. 대과에 응시한 뒤 낙방하며 과거를 포기한 심정을 北風, 病鴈, 羸驂은 쓸쓸한 시어들을 사용하여 풀어 냈다. 성공이나 실패 모두 다 운명에 달려 있는 것이니, 이제 합격에 대한 미련은 버리고 시골에 정착해야겠다는 마음을 먹는다. 功名을 찾다가 늙어 버린 나이에 놀라면서 한가함 속에 살려고 한다. 매화 핀 집에서 주역에 주나 달면서 소일하고 싶다는 말에서 체념과 다짐이 함께 느껴진다. 자신의 실패에 대해서 여유를 보여주지만 왠지 서글프고 씩씩한 여운이 남는다.<sup>38)</sup>

廢科의 결정은 사유나 시기도 다양하다. 그런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남 모를 본인의 苦惱와 不眠의 시간들이 숨어있는 것이다. 쓸쓸하고 서글프지만 담담하고 후련한 심경도 함께 읽힌다. 廢科는 지난 시간에 대한 체념과 포기로 볼 수도 있지만 새로운 길에 대한 모색과 시도로 해석할 수도 있다.

#### 4. 결론

중국에서 下第詩는 중요한 연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계에서는 지금까지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선 하제시 전체의 목록을 제시하고 時期와 詩體 등을 정리했더니 7언절구와 7언율시의 비중이 큼을 알 수 있었다. 시기적으로는 조선 후기에 창작된 것이, 내용적으로는 타인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들이 많았다.

하제시의 주제 구현 양상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과거 실패로 인한 세상과 자신에 대한 복잡한 감회들이 드러났다. 愁, 悲, 羞, 悔, 怨, 恨, 歎 등의 詩語가 빈번하게 사용되어 그들의 심경을 잘 대변해 준다. 다음으로 가족에 대한 미안함을 담았다. 자신의 실패와 성공에 대해 가족들은 연대 책임자가 된다. 그래서 실패로 인한 자신의 內傷을 스스로 치유하는 동시에 가족의 傷心도 어루만져야 했다. 또 낙방한 사람에 대한 격려와 위로를 표현했다. 본인의 하제에 대한 심정을 다룬 시보다 타인의 하제에 대한 위로와 격려를 담은 시들이 더 많다. 과거를 실패한 경험은 보편적인 체험이어서 타인의 실패도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었다. 끝으로 과거를 포기하며 갖게 되는 감회를 담았다. 廢科는 지난 시간에 대한 체념과 포기로 볼 수도 있지만

38) 다음의 시도 廢科의 분위기를 잘 보여주고 있다. 尹元舉, 『秋日下第還鄉』: 可歎無成歲月流, 登山臨水未消憂。淒淒色近村煙暮, 淅淅聲高渚樹秋。見在貧窮誰欲送, 尙來榮達不須求。塵埃昨日營何事, 臥此虛堂却自羞。

새로운 길에 대한 모색과 시도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실패는 결국 나를 위한 자리도 나를 도울 사람도 없다는 극명한 자각을 하게 만든다. 그래서 세상에 맞설 강한 정신력을 가져다주기도 하지만, 세상에서 받은 상처가 문신이나 흉터처럼 고스란히 남기도 한다. 세상에는 여전히 성공한 사람보다 실패한 사람이 더 많다. 하제시는 실패와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래서 이 시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위로가 되어줄 것이라 믿는다.

무엇보다도 하제시에는 順命의 의식이 관류하고 있다. 순명이란 끝내 사람이나 상황은 믿을 수 없지만, 하늘은 자신의 편이 되어 주리라는 강렬한 믿음이다. 실패는 세상이나 타인에 대한 원망이나 분노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지만, 순명을 통해서 어려운 시간들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시작으로 하제시에 대한 관심이 환기되기를 바라며, 韓中 하제시의 비교나 시대별 하제시의 차이, 급제시에 대한 연구 등 여러 문제들은 후속 연구에서 꾸준히 다루어지기를 희망해 본다.



참·고·문·헌

- 최년균, 정환중 (역은이), 『낙제생들의 노래』, 월인, 2011.
- 김새미오, 『梅溪 李漢雨의 詩文學攷』,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석사논문, 1999.
- 박동욱, 『及第詩와 下第詩』, 『문헌과 해석』 55권, 문헌과해석사, 2011.
- 백도근, 『대구 서인 열암 하시찬의 삶과 학문』, 『윤리교육연구』 27집, 한국윤리교육학회, 2012.
- 유영옥, 『鄉儒 黃胤錫의 京科 응시 이력』, 『大東漢文學』 44집, 대동한문학회, 2015.
- 이상주, 『華陽九曲圖와 夏時贊의 華陽九曲屏風詩에 대한 고찰』, 『고전과 해석』 21집, 고전문학한문학회연구학회, 2016.
- 蔭 雲, 『唐代落第詩研究』, 華東師範大學 博士論文, 2008.
- 葉 偉, 『唐代落第詩研究』, 安徽大學 碩士論文, 2007.
- 龍 麗, 『晚唐落第詩研究』, 湘潭大學 碩士論文, 2006.
- 任 斌, 『唐代落第詩研究』, 華東師範大學 碩士論文, 2007.
- 張春娟, 『唐代及第詩研究』, 河北大學 碩士論文, 2012.
- 鄭曉霞, 『唐代科舉詩研究』, 華東師範大學 博士論文, 2005.
- 陳 洋, 『《全宋詩》中落第詩研究』, 東北師範大學 碩士論文, 2016.
- 黃雲鶴, 『唐宋時期落第士人研究』, 東北師範大學 博士論文, 2005.

## 下第詩 研究

下第詩는 과거 시험에 실패한 뒤의 감회를 적은 시를 말한다. 지금까지 하제시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필자가 확인한 하제시는 총 180제 204수이다. 詩體로는 7언절구와 7언율시의 비중이 큼을 알 수 있었다. 또, 시기적으로는 조선 후기에 창작된 것이, 내용적으로는 타인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들이 많았다.

하제시의 주제 구현 양상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과거 실패로 인한 세상과 자신에 대한 복잡한 감회들이 드러났다. 愁, 悲, 羞, 悔, 怨, 恨, 歎 등의 詩語가 빈번하게 사용되어 그들의 심경을 잘 대변해 준다. 다음으로 가족에 대한 미안함을 담았다. 자신의 실패와 성공에 대해 가족들은 연대 책임자가 된다. 그래서 실패로 인한 자신의 內傷을 스스로 치유하는 동시에 가족의 傷心도 어루만져야 했다. 또 낙방한 사람에 대한 격려와 위로를 표현했다. 본인의 하제에 대한 심정을 다룬 시보다 타인의 하제에 대한 위로와 격려를 담은 시들이 더 많다. 과거를 실패한 경험은 보편적인 체험이어서 타인의 실패도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었다. 끝으로 과거를 포기하며 갖게 되는 감회를 담아냈다. 廢科는 지난 시간에 대한 체념과 포기로 볼 수도 있지만 새로운 길에 대한 모색과 시도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무엇보다도 하제시에는 順命의 의식이 관류하고 있다. 순명이란 끝내 사람이나 상황은 믿을 수 없지만, 하늘은 자신의 편이 되어 주리라는 강렬한 믿음이다. 실패는 세상이나 타인에 대한 원망이나 분노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지만, 순명을 통해서 어려운 시간들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시작으로 하제시에 대한 관심이 환기되기를 바라며, 韓中 하제시의 비교나 시대별 하제시의 차이, 급제시에 대한 연구 등 여러 문제들은 후속 연구에서 꾸준히 다루어지기를 희망해 본다.

**주제어** 하제시, 급제, 낙제, 과거시험

Abstract

A Study on *Hajesi* (下第詩) written  
on the theme of failure in the civic examination

Pak, Dong-uk\*

*Hajesi*(下第詩) refers to the poems written on the theme of 'failure in the civic examination.' So far, little research has been done on these works: a total of 180 titles and 204 poems have been found. In terms of verse form, a large portion of Haje poems was composed in *chireonjeolgu* (七言絕句: 7-word, 4-phrase verse form) and *chireonyulsu*(七言律詩: 7-word verse with rhythm); in terms of dates, most of them were composed during the late Joseon era; in terms of content, a number of them were composed to comfort and encourage those who were discouraged because of the failure in the civic examination.

The themes recurring in *Hajesi* are as follows: First, the complex feelings about the writer himself and the world, such as gloom (愁), grief(悲), shame(羞), remorse(悔), resentment(怨), regret(恨), and sighs(歎) are well described. In addition, the writer expressed his feelings toward their families, who had the similar emotional response to the failure in the civic examination, with a sense of solidarity. Therefore, the writer had to heal his own wounded heart and, at the same time, those of in his family members. He also expressed encouragement and consolation to others who failed, too. There are more poems containing consolation and encouragement to others in distress than to himself. Actually failure in the past civic examination was a common experience at the time, so the writer could sincerely comfort others. Finally, it captures the feeling of giving up the past. It can be seen as resignation and abandonment, but it can also be interpreted as seeking and attempting a new path.

Most of all, the consciousness of obedience(順命) is permeating Hajae poems. Obedience is an intense belief that a person cannot trust people or circumstances, but Heaven will be on his side. Failure is enough to cause resentment or anger toward the world or others, but, in the end, through obedience, the writer could overcome difficult times wisely. It is hoped that further interest in Haje poems

---

\* Associate Professor, Hanyang University humanities. / sanwoon@hanmail.net.

will be aroused starting with this study, and various researches such as the comparison between Korean and Chinese Haje poems, differences in Haje poems by era, and studies on the Geupje(及第) poems will be steadily addressed in follow-up studies.

(Key words) Hajjesi(Haje poems), passing the civic exams, failing in the exams, the past exams

논문투고일 : 2023.02.10.	심사완료일 : 2023.03.06.	게재 확정일 : 2023.03.16.
---------------------	---------------------	----------------------

작가	제목	형식	출전	대상	비고
강재항(姜再恒, 1689~1756)	次鶯字韵 慰聖潤下第	7언율시	『立齋遺稿』卷6	타인	문집총간
	漢水行 贈元山人 山人有奇志 下第東歸 作此以况其意	5언고시 (36구)	『立齋遺稿』卷1	타인	문집총간
구문유(具文游, 1644~1718)	下第親親于杆城	7언율시	『禮谷先生文集』 卷1	본인	한국역대문집총서
구용(具容, 1569~1601)	下第後發京城	5언고시 44구	『竹窓遺稿』上	본인	문집총간
	下第後向海州	7언절구	『竹窓遺稿』下	본인	문집총간
	下第	7언절구	『竹窓遺稿』下	본인	문집총간
권렴(權濂, 1701~1781)	下第 己卯	7언율시	『厚庵集』卷2	본인	문집총간
권성오(權省吾, 1587~1671)	送琴景平是調下第歸鄉	7언율시	『東巖先生文集』 卷1	타인	한국역대문집총서
권우(權遇, 1363~1419)	送鄭生員龜晉下第還鄉	7언율시	『梅軒集』卷4	타인	문집총간
	下第示金生員 愴	7언율시	『梅軒集』卷4	본인	문집총간
	下第後 寄鄭龜晉金九德 兩生員	5언율시	『梅軒集』卷3	본인	문집총간
	下第寄僚友	5언율시 (2수)	『梅軒集』卷3	본인	문집총간
권현(權揆, 1713~1770)	送仲言下第南歸	5언율시	『震溟集』卷5	타인	문집총간
	下第後歸錦城釣樹 李八待教走馬追餞 因憶李十七司直見謫在江 南 作醉時歌 兼呈元侍御景淳	7언고시 60구	『震溟集』卷3	본인	문집총간
금응협(琴應夾, 1526~1596)	次趙士敬穆下第韻	5언절구	『日休勉進兩先生 聯稿』卷1	차운	한국역대문집총서
김광수(金光壽, 1801~1871)	下第歸路 吟贈金復元養激	7언율시	『龜陰集』卷1	본인	한국역대문집총서
김노선(金魯善, 1811~1886)	持憲族兄義裕與山野族叔 以詩慰下第 走和以謝	7언율시	『奇溪先生文集』 卷1	본인	한국역대문집총서
김뉴(金紐, 1527~1580)	次徐郎落第詩 仍敍己懷	7언절구	『璞齋先生文集』 卷3	본인 (차운)	남명학고문헌

김득신(金得臣, 1604~1684)	公山途中(下第後作)	7언율시 (2수)	『柏谷集』卷4	본인	문집총간
김만중(金萬重, 1637~1692)	丁酉九月落第後作	7언절구	『西浦集』卷6	본인	문집총간
김성일(金誠一, 1538~1593)	送李逢原安道下第南歸	7언율시 (2수)	『鶴峯續集』卷1	타인	문집총간
김시락(金時洛, 1857~1896)	下第歸路有作	7언율시	『莊庵文集』卷1	본인	한국역대문집총서
김시준(金時僞, 1658~1733)	下第後 將還鄉 自念今已衰暮 不可復遊京國矣 眷顧王都 不能即發 有作示同行	7언절구	『水西文集』卷1	본인	한국역대문집총서
김용환(金龍翰, 1738~1806)	贈下第歸鄉	7언절구 (4수)	『念睡軒文集』 卷3	타인	한국역대문집총서
김우급(金友汲, 1574~1643)	落第	7언절구	『秋潭集』卷4	본인	문집총간
	慰金生下第	7언절구	『秋潭集』卷4	본인	문집총간
김우현(金遇鉉, 1820~1895)	下第吟	7언율시	『仙圃集』卷2	본인	기타
김윤식(金允植, 1835~1922)	李和汝下第歸三和賦詩贈 之兼呈江西使君	7언율시	『雲養集』卷2	타인	문집총간
	嘲道軒李兄下第	7언율시 (2수)	『雲養集』卷2	타인	문집총간
김재찬(金載瓚, 1746~1827)	贈李侄士成下第還鄉	5언율시	『海石遺稿』卷1	타인	문집총간
김제민(金齊閔, 1527~1599)	下第後書旅懷	7언율시	『鰲峯集』卷1	본인	문집총간
김창협(金昌協, 1651~1708)	秋日 往楮島 登過去船 船中先有一老儒 乃洪川進士南宮垣也 曾在壬戌秋 與余同榻于道峰書院 其年 余登第 君獨不偶 今又隨貢上京 口占一絕以贈	7언절구	『農巖集』卷4	타인	문집총간
김택영(金澤榮, 1850~1927)	奉和天遊老人慰下第	7언절구	『韶澗堂集』卷2	화답	문집총간
김평묵(金平默, 1819~1891)	崔慶瑞雲鄉 下第左顧	7언절구 (2수)	『重菴集』卷1	타인	문집총간

김해(金楷, 1633~1716)	下第還鄉 烏嶺途中 與星州都伯春[處東]咸昌蔡 光徵光彥五六人 各口占 次東人韻	7언율시	『負暄堂集』卷1	본인	한국역대문집총서
김희조(金喜祖, 1680~1752)	與宣燾 下第還鄉 完山路上 立馬和別	7언절구	『放湖先生文集』	타인	기타
	漢江戲贈宣燾下第還鄉	7언절구	『放湖先生文集』	타인	기타
	落榜歎	장단구	『放湖先生文集』	본인	기타
남공철(南公徹, 1760~1840)	送李生海甲下第歸鄉	5언율시	『金陵集』卷1	타인	문집총간
남유용(南有容, 1698~1773)	邊生叔建下第 歸中原故林 和其詩爲贈	7언율시	『雷淵集』卷2	타인	문집총간
도균(都勻, 1484~1549)	下第 [見己卯禍起 因詠此誓志]	5언절구	『雲齋先生逸集』 卷1	본인	한국역대문집총서
민제인(閔齊仁, 1493~1549)	送光潤子淨下第歸楡庵寺	5언배율 (44구)	『立巖集』卷4	타인	문집총간
박세채(朴世采, 1631~1695)	送再從兄汝道 世模 下第南歸	7언율시	『南溪集』外集第1	타인	문집총간
박수검(朴守儉, 1629~1698)	送下大老下第還飛鴻	7언절구	『林湖集』卷1	타인	문집총간
박이장(朴而章, 1547~1622)	贈李內甥重茂下第	7언절구	『龍潭集』卷1	타인	문집총간
박익동(朴翼東, 1827~1895)	和贈三從弟景杓會行下第 韻	7언절구	『小近齋集』卷1	화답	한국역대문집총서
박제가(朴齊家, 1750~1805)	次韻任奉事下第	7언율시	『貞裵閣集』2집	타인 (차운)	문집총간
박천갑(朴天甲, ?~?)	下第後海西	7언절구	『江都古今詩選』	본인	기타
박치화(朴致和, 1655~1722)	下第還鄉途中望詩山有懷 崔文昌	7언절구	『舟谷遺稿』	본인	기타
변영청(邊永淸, 1516~1580)	熨金良佐下第	7언율시	『東湖先生文集』 卷1	타인	한국역대문집총서
변종기(邊鍾基, 1854~1937)	甲午下第歸忠州 途中述懷	7언율시	『澹溪遺稿』卷1	본인	한국역대문집총서
사공억(司空億, 1805~1841)	下第南歸 詠漢城桃花 贈李晚松公茂庚兄	7언절구	『茶泉集』卷1	본인	한국역대문집총서
서당오(徐唐五, ?~?)	下第歸路 伏次大人韻	7언율시	『河隱逸稿』	본인 (차운)	한국역대문집총서

서명서(徐命瑞, 1711~1795)	次呈七兄慰下第	7언절구	『晚翁集』卷1	본인 (차운)	문집총간
서사선(徐思選, 1579~1651)	壬午春 下第後 歸臥草堂 仍吟絕句	5언절구	『東臯先生文集』 卷1	본인	한국역대문집총서
	壬午春 下第後 歸臥草堂 仍憶舊時草堂龍臥少風雲 之作 續此短長絕句	5언절구	『東臯先生文集』 卷3	본인	한국역대문집총서
	下第後 歸臥草堂 仍憶舊時草堂龍臥少風雲 之作 續此短長絕句	7언절구 (2수)	『東臯先生文集』 卷3	본인	한국역대문집총서
서응윤(徐應潤, 1836~1862)	下第	5언절구	『徐孺子文集』 卷1	본인	한국역대문집총서
성간(成侃, 1427~1456)	贈崔勢遠下第	7언절구	『眞逸遺稿』卷 3	타인	문집총간
성근묵(成近默, 1784~1852)	金明遠燻下第槐園 枉顧田舍 輒賦小詩 拚餞行李	7언율시	『果齋集』卷2	타인	문집총간
성해응(成海應, 1760~1839)	下第後有吟	5언고시 (14구)	『研經齋全集』卷3	본인	문집총간
손영로(孫永老, 1820~1891)	贈金泰欽下第歸鄉	7언율시	『木西集』卷1	타인	한국역대문집총서
손조서(孫肇瑞, ?~?)	下第	5언절구	『格齋集』卷 2	본인	문집총간
손처눌(孫處訥, 1553~1634)	贈蔡上舍明甫下第歸來	7언율시	『慕堂集』卷3	타인	문집총간
송방조(宋邦祚, 1567~1618)	送竹谷鄭昕下第	7언절구	『習靜集』卷1	타인	문집총간
송정흠(宋程欽, 1839~1883)	送李石圃東秀下第歸鄉	7언율시	『松臯集』卷1	타인	한국역대문집총서
신계영(辛啓榮, 1577~1669)	聞仁甫下第而還 口占以慰	7언율시	『仙石遺稿』卷1	타인	한국역대문집총서
신광수(申光洙, 1712~1775)	堤上鄭士述弘祖見訪城西 一驩如舊 時士述下第 泝江漢而歸 夜話李士能宅 得通字 共賦	5언율시 (2수)	『石北集』卷1	타인	문집총간
신동영(辛東泳, 1849~1906)	暮春逢東農慰下第	7언율시	『東湄遺稿』卷1	타인	한국역대문집총서
	東農自京下第而還	7언율시	『東湄遺稿』卷1	타인	한국역대문집총서



신봉석(申鳳錫, 1631~1704)	送下第人	5언율시	『自足齋遺集』卷1	타인	한국역대문집총서
신익상(申翼相, 1634~1697)	送文瑞兄下第歸自如任所 [第三姊婿李公奎齡表字]	7언율시	『醒齋遺稿』冊3	타인	문집총간
신혼(申混, 1624~1656)	贈下第生歸湖南	5언절구	『初菴集』卷2	타인	문집총간
심유(沈攸, 1620~1688)	李天生震展下第舟往原鄉 座中贈別	5언율시	『梧灘集』卷6	타인	문집총간
	李進士悅落榜而歸 詩以慰之	7언절구	『梧灘集』卷4	타인	문집총간
심지한(沈之漢, 1596~1657)	下第後得親書 賦一律 寄示二弟 之演, 之浩	7언율시	『滄洲集』卷1	본인	문집총간
안석경(安錫敬, 1718~1774)	下第出城, 次槎川韻	7언절구	『雪橋集』卷1	본인 (차운)	문집총간
	下第東歸, 九日舉軒	5언율시	『雪橋集』卷1	본인	문집총간
	下第東歸, 舟上呼韻	7언율시 (2수)	『雪橋集』卷1	본인	문집총간
안치권(安致權, 1745~1813)	下第後 歸家偶感	7언절구	『乃翁遺稿』卷1	본인	한국역대문집총서
안호연(安浩淵, 1827~1898)	下第歸路 滯雨長林 與金景三台斂黃久吉在桓 唱酬	5언율시	『楠溪文集』卷1	본인	한국역대문집총서
양응정(梁應鼎, 1519~1581)	落第到完山 詠妓鶯鶯	7언절구	『松川遺集』卷1	본인	문집총간
양종해(楊宗楷, 1744~1815)	下第歸素沙	5언절구	『遜窩遺稿』卷1	본인	한국역대문집총서
유광천(柳匡天, 1732~1799)	送李兄台世下第南歸	7언율시	『歸樂窩集』卷1	타인	한국역대문집총서
유병헌(劉秉憲, 1842~1918)	道見下第人	7언절구	『晚松遺稿』卷1	타인	한국역대문집총서
유상운(柳尙運, 1636~1707)	仲兒下第後有詩 次韻解之	7언율시	『約齋集』冊3	타인	문집총간
유의건(柳宜健, 1687~1760)	慰落榜諸君	7언율시 (2수)	『花溪集』卷5	타인	문집총간
유의목(柳懿睦, 1785~1833)	丙戌春 下第還鄉 道中吟示 同行友人	7언절구	『守軒先生文集』 卷1	본인	한국역대문집총서
유정문(柳鼎文, 1782~1839)	阿教下第歸 意有不釋然者 以詩解之	7언율시	『壽靜齋集』卷1	타인	문집총간

유한준(俞漢雋, 1732~1811)	送人下第還鄉 庚寅	5언율시	『自著』卷9	타인	문집총간
유혜원(柳惠源, 1632~1695)	己巳春 別科下第吟	7언율시	『虛齋集』卷1	본인	한국역대문집총서
유호인(俞好仁, 1445~1494)	許上舍[純器]下第	5언율시	『濡谿集』卷5	타인	문집총간
윤기(尹楮, 1741~1826)	下第後寫懷	7언율시	『無名子集』冊1	본인	문집총간
	又作絶句	5언절구	『無名子集』冊1	본인	문집총간
윤원거(尹元舉, 1601~1672)	秋日下第還鄉	7언율시	『龍西集』卷1	본인	문집총간
윤종억(尹鍾億, 1788~1837)	下第歸路過廣亭	7언절구	『大東詩選』卷下	본인	기타
	渡錦江	7언절구		본인	기타
이경석(李景奭, 1595~1671)	醉贈郭仙舟兄弟下第 歸湖西	5언고시 (10구)	『白軒集』卷2	타인	문집총간
이공수(李公遂, 1308~1366)	下第贈登第者	5언절구	『東文選』	타인	기타
이광정(李光靖, 1714~1789)	三角山 用水調歌頭體○庚申下第 在衿川鋤里 三角山來龍局勢在眼底	水調歌頭	『小山集』卷1	본인	문집총간
이규보(李奎報, 1168~1241)	李先輩陽下第東歸 以詩慰之	古律詩	『東國李相國集』 卷1	타인	문집총간
	慰高生下第	古律詩	『東國李相國集』 後集 卷1	타인	문집총간
이남규(李南珪, 1855~1907)	不幸登科早 敬次牧隱先祖詩	5언고시 12구 (3수)	『修堂集』卷1	본인	문집총간
이만백(李萬白, 1656~1716)	送金汝振下第還鄉	5언절구	『自濡軒集』卷1	타인	문집총간
이만상(李萬相, 1622~1654)	下第渡漢江	7언절구	『僑齋集』卷1	본인	한국역대문집총서
이명오(李明五, 1750~1836)	送沈楠園 英叟下第還官	5언절구	『泊翁詩鈔』卷9	타인	문집총간
이병성(李秉成, 1675~1735)	贈送李潔夫九畹下第歸鄉 伏次家君韻	5언절구	『順菴集』卷1	타인	문집총간
이상적(李尙迪, 1804~1865)	鶴來年今七十 又下第矣 慰之以詩	7언율시	『恩誦堂集』續集 卷8	타인	문집총간

이시성(李時省, 1598~1668)	下第後承金君辱招 次冊面韻	7언율시	『馭峯集』卷2	본인	문집총간
이약렬(李若烈, 1765~1836)	送鄭念朝下第歸鄉	7언율시	『內窩集』卷1	타인	문집총간
이응희(李應禧, 1579~1651)	慰贈金上舍仲思下第 卽金蔡文	7언율시	『玉潭遺稿』	타인	기타
이의무(李宜茂, 1449~1507)	次下第詩韻 代期叟 贈堯叟之作	7언절구	『蓮軒雜稿』卷2	차운	문집총간
이의한(李宜翰, 1632~1707)	癸亥庭試下第 到新院 二絶	5언절구 (2수)	『紫雲先生文集』 卷1	본인	한국역대문집총서
이이송(李爾松, 1598~1665)	送金終卿時忱下第還鄉	7언율시	『開谷先生遺集』 卷2	타인	한국역대문집총서
이정섭(李廷燮, 1688~1744)	送姨弟李之性命錫下第歸 鄉(二首)	7언율시 (2수)	『樗村集』卷2	타인	한국역대문집총서
이계신(李濟臣, 1536~1584)	邁好送友人落第歸鄉	5언절구	『清江笑圃』卷1	타인	기타
	同年金齊閔士孝 落第歸鄉 席上口呼	5언율시	『清江笑圃』卷1	타인	기타
이준(李埈, 1560~1635)	慰金無悔下第 時無悔在洛	7언율시	『蒼石集』卷1	타인	문집총간
이진망(李眞望, 1672~1737)	前年舍兄下第 九兄今又見屈 實是門運所關 咄歎之餘 以一律奉寄舍兄及九兄	7언율시	『陶雲遺集』冊1	타인	문집총간
	下第夜 錄寄十兄十五弟諸同病者	7언율시	『陶雲遺集』冊1	본인	문집총간
	從兄下第後旋作親行 而鎖直不得出別 聊呈二作	5언율시 (2수)	『陶雲遺集』冊1	타인	문집총간
이진택(李鎭宅, 1738~1805)	甲午下第後 與安佐郎丈[景漸] 偕往金剛山 過樓院 口號一絶	7언절구	『德峯集』卷1	본인	문집총간
이태현(李泰鉉, 1838~1904)	下第後漢江口號	5언절구	『春灘文集』卷1	본인	한국역대문집총서
이하곤(李夏坤, 1677~1724)	下第後 南歸述懷	7언율시	『頭陀草』冊6	본인	문집총간
이홍조(李弘祚, 1595~1660)	丙戌秋 下第而歸 至烏嶺馬上口號	7언절구	『睡隱遺集』卷1	본인	문집총간

이후백(李後白, 1520~1578)	送友人落第歸鄉	7언율시	『靑蓮集』卷1	타인	문집총간
이희석(李熙奭, 1820~1883)	下第懷述 丁巳	7언절구	『瑞樵遺稿』卷1	본인	한국역대문집총서
장석영(張錫英, 1851~1929)	下第出崇禮門	7언절구	『晦堂集』卷1	본인	문집총간
장유(張維 1587~1638)	送張生希稷下第後歸海西 婦家	7언율시	『谿谷集』卷30	타인	문집총간
정국풍(鄭國豐, 1802~1877)	下第吟	7언율시	『習靜齋遺稿』卷1	본인	한국역대문집총서
정규영(鄭圭永, 1857~1932)	下第人	7언율시	『一玉遺稿』卷3	본인	한국역대문집총서
정내교(鄭來僑, 1681~1757)	宋進士達甫下第還鄉	7언절구	『浣巖集』卷1	타인	문집총간
정문부(鄭文孚, 1565~1624)	贈年友下第還鄉	7언율시	『農圃集』卷1	타인	문집총간
정백창(鄭百昌, 1588~1635)	送全秀才 益禧 下第歸榮川	5언 고시 52구	『玄谷集』卷5	타인	문집총간
정약용(丁若鏞, 1762~1836)	時三屈泮宮之課 留會賢坊	5언율시	『茶山詩文集』卷1	본인	문집총간
	銅雀渡 [時屈監試 領內赴和順 九月也 汝三同行	5언율시	『茶山詩文集』卷1	본인	문집총간
	感興二首 【時下第】	5언고시 10구 (2수)	『茶山詩文集』卷1	본인	문집총간
정옥(鄭玉, 1694~1760)	和從弟東里下第韻 從弟至後改南仲	5언율시	『牛川集』卷1	화운	문집총간
정이조(丁彝祚)	送金直甫下第歸湖南	7언율시	『漁山散人詩集』 卷1	타인	한국역대문집총서
	送朴稚度下第歸元山 二首 並序	5언고시 (44구)	『漁山散人詩集』 卷1	타인	한국역대문집총서
정해필(鄭海弼, 1831~1887)	余未歌鹿伊日 雨注 舉人皆櫛沐 以詩嘲下第人 二首	7언절구 (2수)	『照菴集』卷1	타인	문집총간
정홍서(鄭弘緒, 1571~1648)	下第還鄉途中口占	7언절구	『松灘集』卷1	본인	한국역대문집총서
	下第還鄉 到所殺嶺 與河晉伯分手 甲子	5언율시	『松灘集』卷1	본인	한국역대문집총서

조성윤(趙性胤, 1845~1904)	次宗兄慕巖性淑下第韻	7언절구	『廣川集』卷1	타인	한국역대문집총서
조수삼(趙秀三, 1762~1849)	贈別朴雅士下第歸江陵	7언율시	『秋齋集』卷6	타인	문집총간
조순(趙舜, 1467~1529)	下第歎 己酉	7언절구	『玉峰先生逸稿』卷1	본인	한국역대문집총서
조유수(趙裕壽, 1663~1741)	答寄鶴林守下第還任	7언절구	『后溪集』卷6	타인	문집총간
조진옥(曹振玉, 1730~1799)	下第歸路曉渡漢江	5언절구	『二皓集』卷1	본인	한국역대문집총서
조태억(趙泰億, 1675~1728)	送生時恒下第還鄉	7언율시	『謙齋集』卷2	타인	문집총간
조한영(曹漢英, 1608~1670)	下第後 歸驪湖	7언절구	『晦谷集』卷6	본인	문집총간
주서오(周瑞五, 1764~1834)	下第還山 作詩以見志	5언율시	『端天遺稿』卷1	본인	한국역대문집총서
주세붕(周世鵬, 1495~1554)	送友人下第南行	5언고시 12구	『武陵雜稿』別集 卷1	타인	문집총간
	送友人下第南還	7언절구	『武陵雜稿』卷2	타인	문집총간
	送公佐下第南行 兼勉從弟子翰	5언고시 32구	『武陵雜稿』別集 卷1	타인	문집총간
	送子弘下第南行 使呼韻賦之	5언고시 14구	『武陵雜稿』別集 卷1	타인	문집총간
진경문(陳景文, 1561~1642)	下第還家寄市西	7언절구	『剡湖詩集』卷上	본인	한국역대문집총서
차석호(車錫祐, 1846~1911)	下第 乙丑	5언율시	『海史集』卷1	본인	한국역대문집총서
	下第 路過玉峙先祖判官公墓 癸酉	5언절구	『海史集』卷1	본인	한국역대문집총서
채계공(蔡濟恭, 1720~1799)	族弟友恭下第來宿	5언율시	『樊巖集』卷16	타인	문집총간
채평윤(蔡彭胤, 1669~1731)	季弟仲賁下第歸庭贈之	7언율시 2수	『希菴集』卷7	타인	문집총간
	金生得鉉下第來會草贈 變律	7언율시	『希菴集』卷12	타인	문집총간
최광남(崔光南, 1747~1814)	落第有感 戊午八月	7언율시	『竹坡集』卷1	본인	남명학고문헌

최항경(崔恒慶, 1560~1638)	歎兒落榜 三首	7언절구 (3수)	『竹軒集』卷1	타인	문집총간
하백원(河百源, 1781~1845)	龍仁店舍 逢落第生 以詩慰之	5언절구	『圭南文集』	타인	기타
	僕性懶散自分棄置不赴試 京師已十四年今年秋偶復 入荊園見攢而歸作詩自嘲	7언율시	『圭南文集』	본인	기타
	下第南還偶拈寒水齋集中 韻寄水館子李季問學在	7언율시 2수	『圭南文集』	본인	기타
	洪應汝屢舉見蹟若有不豫 色戲作長偈聊以慰解	7언율시	『圭南文集』	타인	기타
하시찬(夏時贊, 1750~1828)	廢科舉	7언절구	『悅菴集』卷1	본인	문집총간
하진태(河鎭兌, 1737~1813)	丹砂公下第還家 吟呈	7언절구	『杏亭文集』卷1	타인	한국역대문집총서
홍봉주(洪鳳周, 1725~1796)	下第口占	7언절구	『石崖先生文集』 卷2	본인	한국역대문집총서
	舍季季章冕周 下第南歸 滯京送別	5언율시	『石崖先生文集』 卷1	타인	한국역대문집총서
홍언충(洪彦忠, 1473~1508)	送祖禹下第歸鄉	7언 율시	『寓菴稿』卷1	타인	문집총간
홍위(洪瑋, 1559~1624)	下第後書懷	5언율시	『西潭集』卷1	본인	문집총간
홍적(洪迪, 1549~1591)	送友人下第還嶺南 二首	5언율시 (2수)	『荷衣遺稿』	타인	문집총간
홍주국(洪柱國, 1623~1680)	下第偶吟	7언율시	『泛翁集』卷3	본인	문집총간
홍주원(洪柱元, 1606~1672)	送舍弟下第還鄉	5언율시	『無何堂遺稿』冊1	타인	문집총간
	贈子裕下第南歸	5언율시	『無何堂遺稿』冊1	타인	문집총간
황기원(黃基源, 1817~1879)	梁鳳溪下第 訪余直中	5언율시	『竹林集』卷1	타인	한국역대문집총서
황준량(黃俊良, 1517~1563)	贈裴希顔下第來過	7언율시	『錦溪集』外集 卷2	타인	문집총간
황현(黃玿, 1855~1910)	成均會試見罷作 壬午	7언율시	『梅泉集』卷5	본인	문집총간